

# 후보 3인 “巨與 이끌 책임자는 바로 나”

### 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경선... 오늘 합동 토론회 개최

#### 김태년 ‘통합’·전해철 ‘소통’·정성호 ‘섬김’ 메시지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뽑기 위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내대표 후보들은 공휴일인 5일에도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특히 다음날인 6일 초선 당선인 68명을 상대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예정된 만큼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메시지를 다듬는 데 공을 들였다.

토론회는 모두발언과 공동질문-초선 당선인 질문에 대한 답변,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후보자 첫 토론회로서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를 차지하는 초선의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이하 기호순)은 이날 오전 의원들과 통화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정과제 설계 작업을 주도하고 이후 당정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한 경험을 강점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이뤄내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수도권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맨투맨 설득에 주력하는 한편 이동 도중 틈틈이 토론회 발언 원고를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자신을 도와주는 수도권 의원 30여명과 함께 조찬을 하며 세를 다졌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당·정·청 소통 능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법 협상 TF(태스크포스) 참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당 최고위원, 경기도당 위원장 경험 등 국회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초선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설명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

한데 결국 신뢰에 기반한 당·정·청 관계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의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얽은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초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행사하는 최초의 권한 행사”라며 “개인적인 친소 관계나 공천 과정에서의 인연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리더십이 필

요할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이해찬 대표와도 가까운 ‘당권파 친문’으로 좁히는 김 의원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의원 간 양강구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당내에서 계파색이 비교적 얽은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얼마나 득표할지도 주목된다. 당의 다양성을 가능할 하나의 잣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천 화재 피해 합동분향소 찾은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친 후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합의 불발에 원포인트 개헌안 폐기수순

### 통합당 “8일 본회의 불가” 최종입장... 문 의장 직권 소집 전망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9일)을 앞두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며 ‘반쪽’ 개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5일 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본회의에 대해 “최종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

안은 차이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협상을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측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헌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간 협상을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전

망된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당과 통합당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연합뉴스

##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4파전

### 주호영·이명수·김태흠·권영세 출사표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되면서 선수(選數)·계파·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선일을 사흘 앞둔 5일 현재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21대 당선자는 주호영 의원, 이명수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 김태흠 의원 등 4명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6일까지 ‘깜짝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인 만큼 이들 중 한 명이 출선 참패 이후 20일째 표류하는 통합당의 조타수를 잡을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구에 ‘자객공천’됐다가 생환한 인물이다. 이 의원은 총청을 기반으로 한 옛 자유선진당 출신으로 18대 총선에서부터 내리 4선을 달성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복기왕

후보를 꺾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권 당선인은 2002년 16대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뒤 옛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경쟁 후보 중 유일한 50대(57세)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돕는 청년조직에서 활동했고, 자민련 당직자를 거쳐 1998년 JP가 총리에 취임하자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당선인 84명 중 68%인 56명을 영남이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영남 대 비(非)영남’ 구도가 형성되며 주 의원이 일단 지역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파로 보면 친박(친박근혜)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 역시 친박 성향인 권영세 의원에 맞서 TK이치만 비박(비박근혜)계인 주호영 의원, 계파색이 얽은 이명수 의원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 ‘0석’ 민생당 활로찾기

### 비대위 vs 조기 전대 오늘 최고위서 결론

지난 4·15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원내 3당’에서 ‘원의 정당’으로 전략한 민생당이 이번 주 본격적인 내부 준비 및 활로 모색에 나선다.

민생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또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중 하나를 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 지난 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

한 최고위 참석자는 “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새 출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

당대회는 안 맞는다”며 “자성해야 할 때 표를 달라고 뛰어다닐 수 없다”며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다.

전당대회로 가닥이 잡힐 경우 시도당 개편대회, 당원명부 정리 등에 이은 6월 개회가 점쳐진다.

당 일각에서는 다른 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원내 정당만 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당선인에게 접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옛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들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론화

### 미가입자 1천만명... 당정청,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계기로 고용시장 제도를 수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정·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가 개헌하면 고용보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안팎 밖에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최장 6개월간 달달이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